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⑧ 〈오백나한도〉 속 두 스님은?



▶ 한줄 요약
일본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 내에는 다양한 나한 도상이 있다. 이중 토굴에서 수행하는 나한과 구렁이와 함께 있는 나한은 각각 자장 스님과 사복 스님으로 추정된다.

오백나한 중 자장·사복도 있었네

지난 연재 〈오백나한도〉의 글에서, 화면 정중앙 삼존불 위에 눈에 띄게 위치한 스님이 '원효대사' 임을 논한 바 있다. 붉은 의자에 앉은 원효대사를 중심으로 그를 보위하는 나한 여덟 명이 빙 둘러 있다. 따로 이 같은 무리의 단위로 구획을 형성하고 있어서 작품 속의 원효 대사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원효 대사만큼이나 또 눈에 뜨이게 별도의 구획으로 그려진 스님이 두 분 더 계시다고 지난 연재에 언급한 바 있다. 잠시 지난 연재의 해당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이러한 (원효) 대사의 모습이 고려불화, 〈오백나한도〉 속에 있다니! 삼존불 바로 위의 정 중앙에 원효 대사가 있고, 그 주변 좌우로 따로 구획되어 그려진 스님이 두 분이 더 계시다. 한 분은 토굴에서 홀로 명상에 잠겨있고, 나머지 한 분은 육환장을 들고 거대한 구렁이를 좌복 삼아 앉아 계신데, 아직 어떤 유명한 선사인지 미지수이다."

이에 대해 흥미로운 인터넷 댓글이 게재됐다는 연락을 받아 확인했다. 내용은 "혹시 토굴 명상은 자장 스님, 구렁이 위에서 참선은 사복이 아닐까요"였다. 매우 놀라운 추론이라고 판단됐다. 다시 한 번 〈오백나한도〉에서 지명된 두 스님이 누구인지 열린 토론을 하기 위해 두 스님의 모습을 공개한다.(그림1, 그림2) 과연 이 두 분이 어떤 스님일지, 이하 함께 추론해 보기로 한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추론이기에, 허점이 있더라도 많은 양해를 부탁드린다. 거칠지만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조금이라도 진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다른 나한들도 우글우글 많은데, 왜 이들 두 분에게 주목하는가? 이 같은 질문을 피해갈 수 없겠다. 원효 대사로 추론한 스님은, 이미 위에 언급했듯이, 무수한 나한들을 보다가 보면, 크기도 그렇거니와 위치에 있어서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비중으로 그려졌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그리고 정면에서 작품을 보았을 때, 한 가운데의 삼존불 다음으로 눈에 띄도록 신중하게 구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선은 바로 위의 토굴 속에 눈을 내리 깔고 앉아 있는 스님에게로 옮겨 간다. 여타 나한님들은 무리를 지어 나타내어 하나의 군상을 이루는 형식으로 그려져 있다.

반면, 토굴 속 존자와 구렁이 좌복 존자는 독립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리도 구렁이 존자는 그 묘사된 크기와 비중에 있어, 거의 원효 대사와 비등할 정도로, 멀리서 보아도 눈에 확 띄게 그려졌다. 물론 가운데 삼존불 하단 쪽으로, 하반신에 불을 일으키는 스님도 보이고, 붉은 가사에 이국적인 털북숭이 스님도 눈에 뜨인다. 하지만, 딱히 이분들을 크게 그리거나 별도의 구획을 지어 강조한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여타 신통을 부리고 일상을 소일하는 나한들과 비중이 비슷비슷하다. 그렇기에 작품을 보고 있자면, 자연히 이들 무수한 오백나한들 위로 떠오르는 세 명이 있는데, 그들이 원효 대사를 비롯한 상기 언급한 두 명이다.



그림①



그림① 일본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에 그려진 '토굴 속의 나한'의 모습. 자장 율사로 추정된다.

그림② 〈오백나한도〉의 부분. 구렁이와 동심일체로 육환장을 든 나한의 모습이 인상적이다. 신라 십성으로 추앙받는 사복으로 보인다.



그림②

日 지은원 소장 '오백나한도'
토굴, 뱀 관련 나한들 '눈길'
자장·사복 스님으로 추정돼

통도사 자장 진영과 유사해
사복 스님도 원효와 연관돼

〈삼국유사〉 속 삼국 시대를 대표하는 스님은 단연 원효, 의상, 자장 스님이다. 그 외 원광, 도의, 도선 스님도 빼놓을 수 없겠다. 그리고 금산사와 동화사 관련하여 진표 스님도 물망에 오를 수 있겠다. 토굴 속 스님이 의상 스님이 아닌가도 추론을 해 보았다. 원효 대사와 일단 거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묘사되어 있다. 주지하다시피, 둘은 죽마고우로 당 유학길에 같이 오른 인연이다. 그러면 토굴은 낙산사의 관음굴이 되지 않을까? 또 입고 있는 옷도 다른 소탈한 나한들의 의복에 비해 매우 화려하다. 가사에 자색 테두리를 둘렀고, 테두리 속은 금박 또는 금실의 문양으로 장식하였다. 그리고 푸른 풀방석 위에 앉아 계신다. 한 눈에 지체 높은 스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 존상이 의상 스님임을 나타내려면 좀 더 그를 상징하는 도상들이 추가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사료된다. 예를 들면, 백화도량을 상징하는 백화라든가 관세음보살의 암시로 등장하는 파랑새 등. '토굴을 과연 관음굴로 볼 수 있을까', '의상 스님이라면 좀 더 하얀 피부에 곱상한 귀족미가 물씬 나게 그렸을 텐데' 라는 상상의 나래를 펼쯤, 댓글 작성자인 정진원 교수의 말대로 '자장 스님이 아닐까' 라는 의견에 귀가 기울여 진다.

통도사 소장 자장 율사의 진영의 얼굴이 퍼뜩 떠올랐기 때문이다. 근엄하고 후덕한 전형적인 경상도 남성상이다. 고려 시대 〈삼국유사〉가 집필되고, 이 〈오백나한도〉가 그려졌을 당시, 불교계의 인식을 한 번 들여다보자. 그 당시 관점으로, 지난 시대를 대표한, 불교에 크게 기여한, 또 우리가 계승해야할 기라성 같은 스님을 꼽자면 물론 자장 스님을 빼놓을 수 없었을 것이다.

〈삼국유사〉에 따르면, 나라의 최고 보물을 자장 율사가 가지고 온 진신사리로 꼽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지하듯이, 당나라에서 가지고 온 진신사리를 안치하기 위해, 금강계단과 통도사가 조성되었다. 이로써, 비로소 부처님의 진신이 있는 불교 종주국이 된 것이겠다. 자장은 진골 출신의 귀족이었고, 대국통을 지냈으며, 황룡사 9층탑을 조성한 선지식이다. 금강계단 이후, 전국 각처에 10여 개의 탑을 조성하였고, 당 연호의 사용을 건의하여 동아시아 질서 속에 나라의 기틀을 잡았다.

다음으로 (정면에서 보아)원효 대사의 오른쪽, 원효 대사만큼이나 크게 그려진 구렁이 스님을 보도록 하자. 정진원 교수는 이 스님이 '사복이 아닐까' 했는데, 커다란 구렁이와 일심동체된 모습으로 있으니, 뱀 '사(蛇)' 자에 복 '복(福)' 자를 쓰는 사복이 연상되는 것은 사실이고, 실제 신라 십성의 한 명으로 추앙받기도 했다. 사복에 관한 〈삼국유사〉의 글을 인용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주 만선북리에서 과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열두 살이 되어도 말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여 이름을 사복이라 하였다. 어느 날 어머니가 죽자 고선사(高仙寺)로 원효(元曉)를 찾아가서 "그대와 내가 옛날 경(經)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같이 가서 장사지내자"고 청하였다. 이에 함께 집으로 돌아와 포살(布薩)을 하고 수계(授戒)하였다. 원효는 시체 앞에서 축원하기를 "나지를 말아라, 죽는 것이 괴롭다. 죽지를 말아라, 나는 것이 괴롭다(莫生兮其死也苦, 莫死兮其生也苦)"라고 하였다. 사복이 그 말이 너무 길다고 하자 원효는 다시 "생사가 모두 괴롭구나"라고 하였다. 두 사람이 상여를 메고 활리산(活里山) 동쪽 기슭으로 가서 장사를 지냈다. 사복은 게(偈)를 지어 "옛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사라수 사이에서 열반하셨네. 지금 또한 그와 같은 이가 있어 연화장계관(蓮花藏界寬)에 들어가려 한다(往昔釋迦牟尼佛, 婆羅樹間入涅槃, 于今亦有如彼者, 欲入蓮花藏界寬)"고 하고 풀뿌리를 뽑으니 그 속에 명랑한 세계 칠보 장엄 누각이 있어 인간계가 아니었다. 사복이 시체를 업고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니 땅이 오므라졌다.

이상, 글 속의 대화에서 사복이 원효보다 한 수 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효가 장황하게 말하자 이를 수정해 주는 대목이 있다. 그리고 "그대와 내가 옛날 경(經)을 싣고 다니던 암소가 지금 죽었으니 같이 가서 장사지내자"라는 사복의 청에, 원효가 스승처럼 섬겼다는 대안 스님이 바로 연상된다. 원효 대사는 〈금강삼매경론〉을 소를 타고 가다는 도중 내리지도 않고, 소의 두 뿔 사이에서 집필했다는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다. 그때 〈금강삼매경〉과 인연을 맺어준 사람이 바로 대안 스님이다. 그러면 사복의 전생은 대안 스님이고, 돌아가신 사복의 어머니는 전생에 원효가 탔던 암소인가? 이런 저런 추론은 다시 원점을 맴돈다. 구렁이를 깔고 앉아 육환장을 들고 있는 스님은 과연 누구일까?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보련기획 BORYEON
장엄불사 보련기획이 하면 가치가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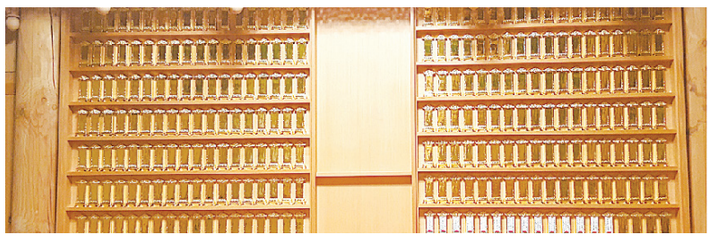
부처님오신날 도량장엄등 설치 • 유지관리


연등 자동승강장치


고정식 연등설치


천불전


인 등


위 패


법당용 연등

공단연등


아크릴한지등

부처님오신날 장엄등


전선, 전구등 공사자재


www.boryeon.com
010-5381-9355 / 031)526-2201~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일산리 549-1